

몽촌토성 목책 재설치 공사 구간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2014. 11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몽촌토성 목책 재설치 공사 구간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I. 조사개요

1. 조사명 : 몽촌토성 목책 재설치 공사 구간 발굴조사
2. 조사목적 : 몽촌토성 서북지구 목책 재설치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몽촌토성의 성벽 축조양상 및 기법, 축조시기 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3.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3)
4. 조사기간 : 2014년 10월 23일 ~ 2014년 11월 (현장조사 15일)
5. 조사면적 : 144m²
6. 허가번호 : 허가 제 2014-0994호
7. 조사단 구성
조사 단장 :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박중균(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발굴조사팀장)
조사원 : 최경숙(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준조사원 : 최진석(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혁희(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보조원 : 강현정(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최재도(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신지향(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8. 조사 결과

- 토축성벽 및 기둥구덩 확인
- 판축토 내에서 옹 구연부편, 승문·격자문 등이 타날 된 적갈색 연질토기편, 절두 우각형 파수편 출토
- 교란토 내에서 토기 뚜껑편, 단경호 구연부편 등이 출토

II. 몽촌토성 및 주변지역의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몽촌토성의 행정구역상 소속은 당초 경기도 廣州郡에 속하였다가 서울시 강동구 방이동으로 변경된 뒤 현재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속한다. 수리적 좌표는 동경 137°7'14"~137°7'47", 북위 37°21'17"~37°30'9"에 해당한다.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북서쪽으로 분기한 능선의 끝자락인 해발 45m 내외의 자연구릉을 이용하여 축조된 토성이다. 따라서 평면모습은 성벽이 자연구릉의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부정형의 마름모꼴을 하고 있다.

몽촌토성의 지형은 대체로 서남쪽이 높고 북동쪽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어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4.8m로 서남벽에서 북서벽으로 회절하는 지점의 성벽 정상부에 해당하며, 가장 낮은 지점은 북문지 일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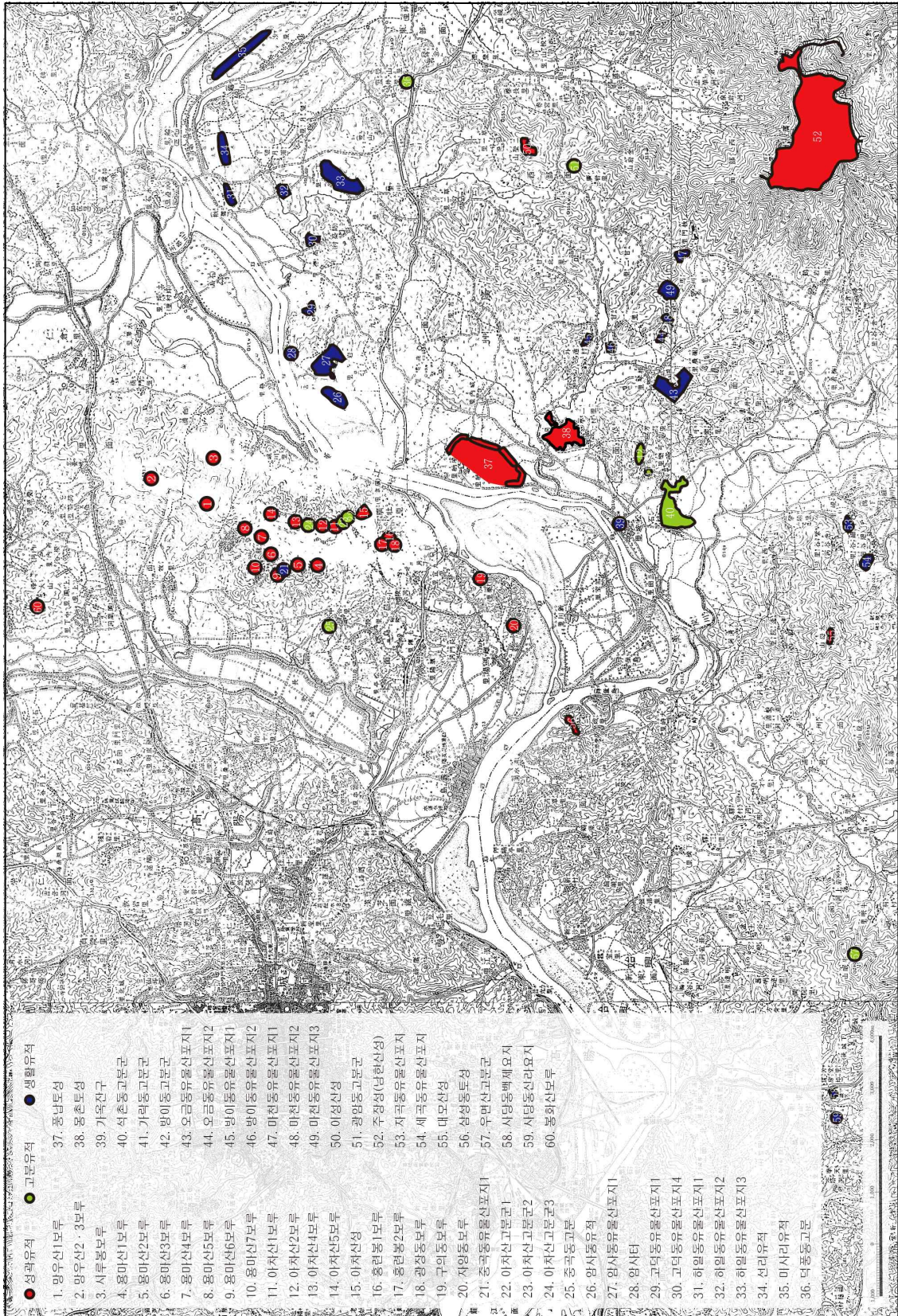
몽촌토성 주변의 수계는 몽촌토성의 북쪽으로 인접하여 서울시의 중심을 동서방향으로 흐르며 관통하는 한강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한강의 지류인 성내천이 몽촌토성의 동쪽과 북쪽을 휘감아 돌며 흘러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자연해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고고·역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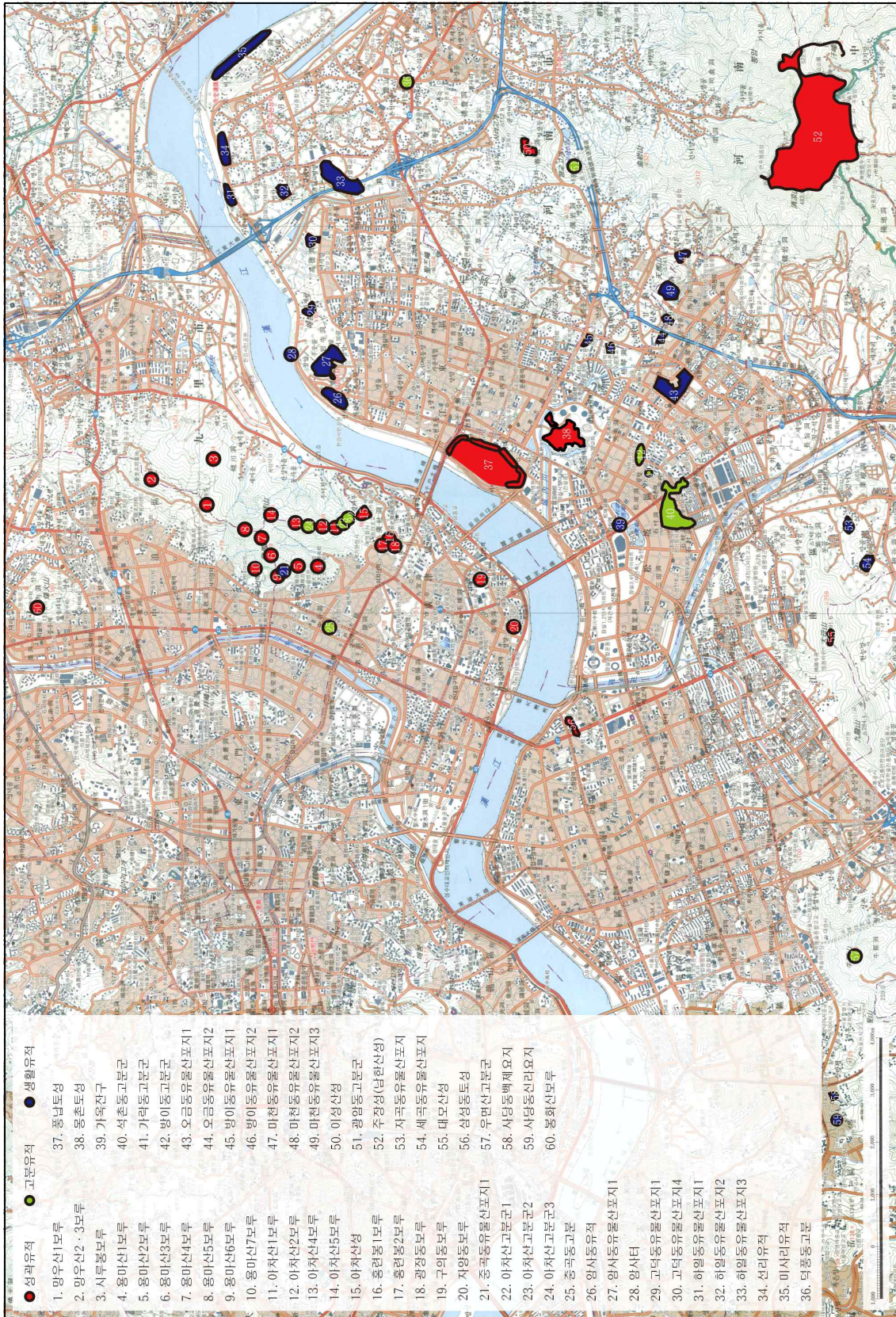
몽촌토성이 위치한 서울은 역사적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백제 온조왕이 기원전 18년에 나라를 세우고 기원후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한성백제의 王都였으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 500년 동안의 수도역할을 하였던 역사적인 고도이다.

몽촌토성이 위치한 서울의 동부지역에는 선사시대로부터 고대에 이르는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한강 남쪽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에는 주로 신석기, 청동기 시대 등 선사시대 유적과 백제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한강 북쪽 광진구에는 고구려와 신라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몽촌토성은 현재 학계에서 한성 백제 왕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풍납동토성(사적 11호)이 북서쪽으로 7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풍납동토성과 더불어 남성과 북성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성산성·남한산성·대모산성·삼성동토성·아차산성·아차산 일대의 보루유적 등 한강 남안과 북안에 분포하고 있는 삼국시대 관방유적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몽촌토성의 남쪽으로는 방이동 고분군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서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석촌동고분군과 가락동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도면 1] 백제왕도유적 분포현황(1919년 제작 지형도)



[도면 2] 백제왕도유적 분포현황(2012년 제작 수치지형도)

<표 1> 서울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유적 현황표

구분	원삼국(馬韓)	삼국		
		백제	고구려	신라
城堡		풍납동토성 몽촌토성 삼성동토성(멸실) 대모산성	구의동보루 용마산보루 시루봉보루 흥련봉보루 아차산보루	아차산성 이성산성
古墳		석촌동고분군 가락동고분군(1·2호분) 우면동유적(석실분 2) 덕풍동 수리골유적 (토광묘 2) 광암동유적(석실분 2) 미사리유적(옹관분 3) 암사동유적(옹관묘 2)		방이동고분군 가락동3~6호분 우면동유적 (석실묘 5) 광암동유적 (통일신라 석곽묘 11기)
聚落	풍납동토성내 3중환호취락	미사리유적 암사동백제주거지 올림픽 미술관건립부지 유적 우면동유적(주거지)		

III. 몽촌토성의 현황과 문헌기록, 기 조사내용

1. 몽촌토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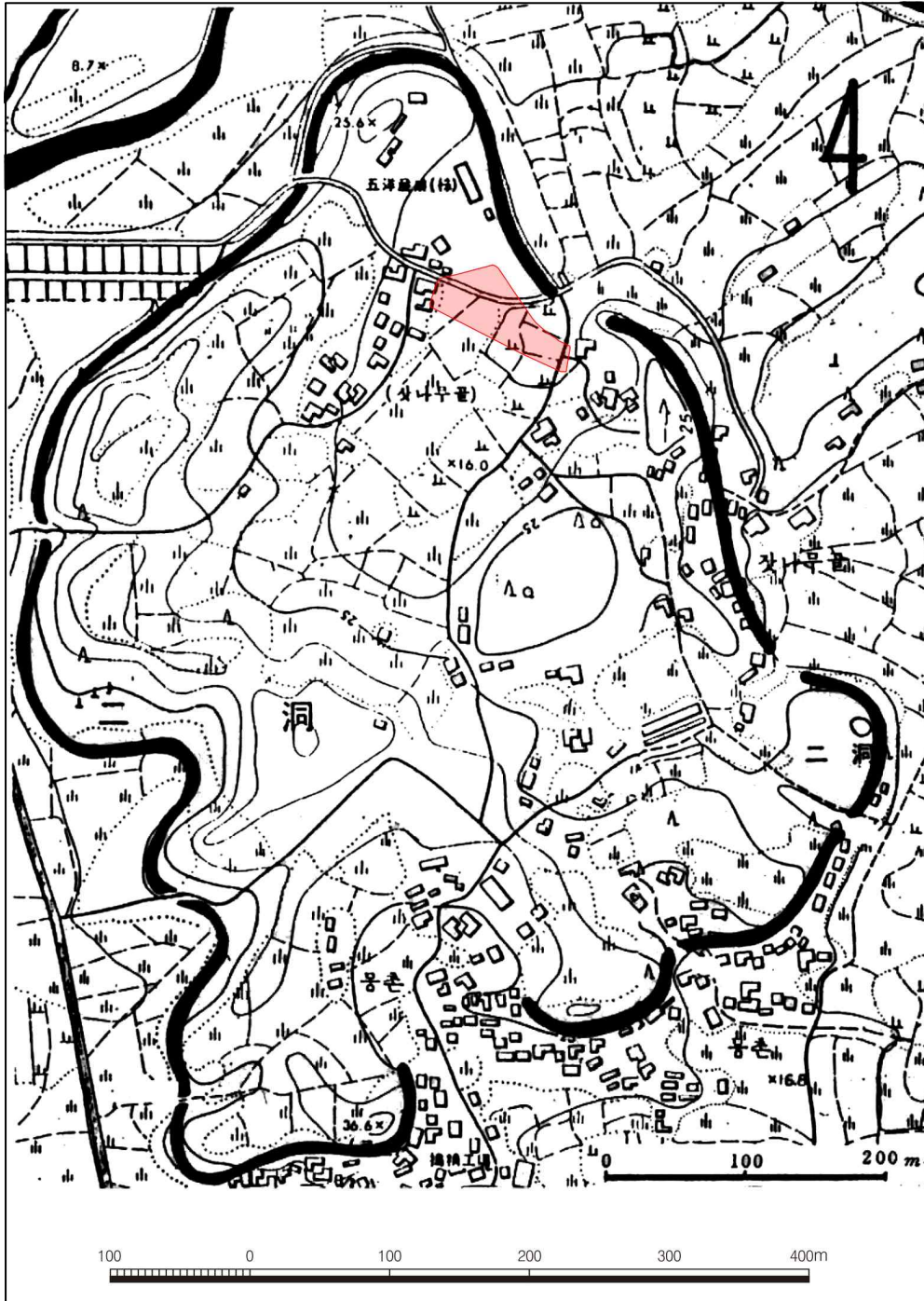
몽촌토성 성벽의 길이는 성벽 정상부를 기준으로 서북벽이 617m, 동북벽 650m, 서남벽 418m, 동남벽 600m이며, 전체둘레는 2,383m에 달한다. 성 내부면적은 성벽 정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약 224,840㎡(약 6만 7천평)이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 외벽 하단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441,767㎡(133,634평)이다.

몽촌토성 성벽의 높이와 너비는 현재 성벽 축조 당시의 구지표 위로 2.5~3.0m 정도 전체적으로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어 당초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각 지점별 Tr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를 통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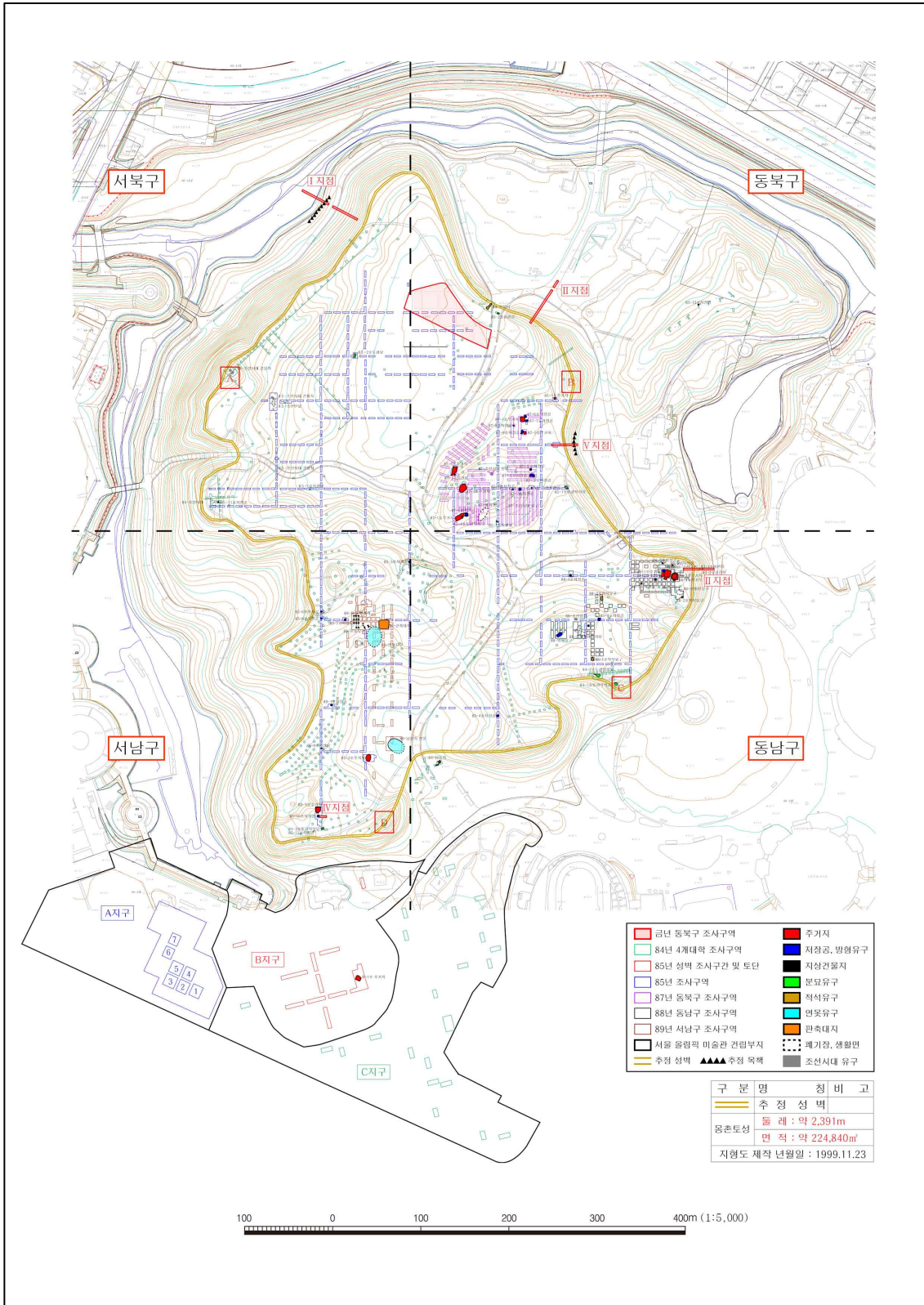
<표2 > 몽촌토성 각 지점별 성벽 높이와 너비

지 점	높이(현지표)	너비	
		상단	하단(現地表)
I 지점(서북벽 北端)	17m(13m)	7.5m	약 50m(30m)
II 지점(북문지 동쪽)	12.5m(10.7m)	10.5m	약 65m(55m)
III 지점(동문지 남쪽)	15.8m(11.8m)		약 28m(21m)

垓字는 1983년도 조사에서 서북벽 I 지점과 동벽 III 지점 하단에서 확인되었는데, 서북쪽에서는 현 지표하 2.8m 지점에서 회청색 빨이 나타났고, 동쪽에서는 현 지표하 3.2m 깊이에서 빨층이 확인되었다. 해자의 규모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정확한 근거 없이 동문앞 '88호수 에서 외성을 돌아 토성 서남부까지 해자가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도면 3] 몽촌토성 지형도(1/5,000)



[도면 4] 기 조사지역 표시도

2. 몽촌토성 관련 문헌기록

몽촌토성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高麗史』 列傳 趙云佐에 “判典交寺事로 禡王 6년(1380)에 벼슬에서 물러나서 廣州 高垣江村에서 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운흥의 墓誌文에는 “廣州 古垣城”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광주 고원강촌은 옛 성터를 의미하는 고원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몽촌토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東國輿地勝覽』 廣州府 山川條에는 “망월봉은 州의 서쪽 10리 몽촌에 있다(望月峰 在州西十里 夢村)”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망월봉은 바로 몽촌토성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이 외에 서거정이 望月峰을 읊은 시에 “移樽飛上夢村山顛”이라 하여 ‘몽촌산’이란 지명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보면 몽촌토성은 고려말에 고원강촌 혹은 고원성으로 불렸다가 늦어도 15세기 중엽에는 몽촌(夢村)으로 불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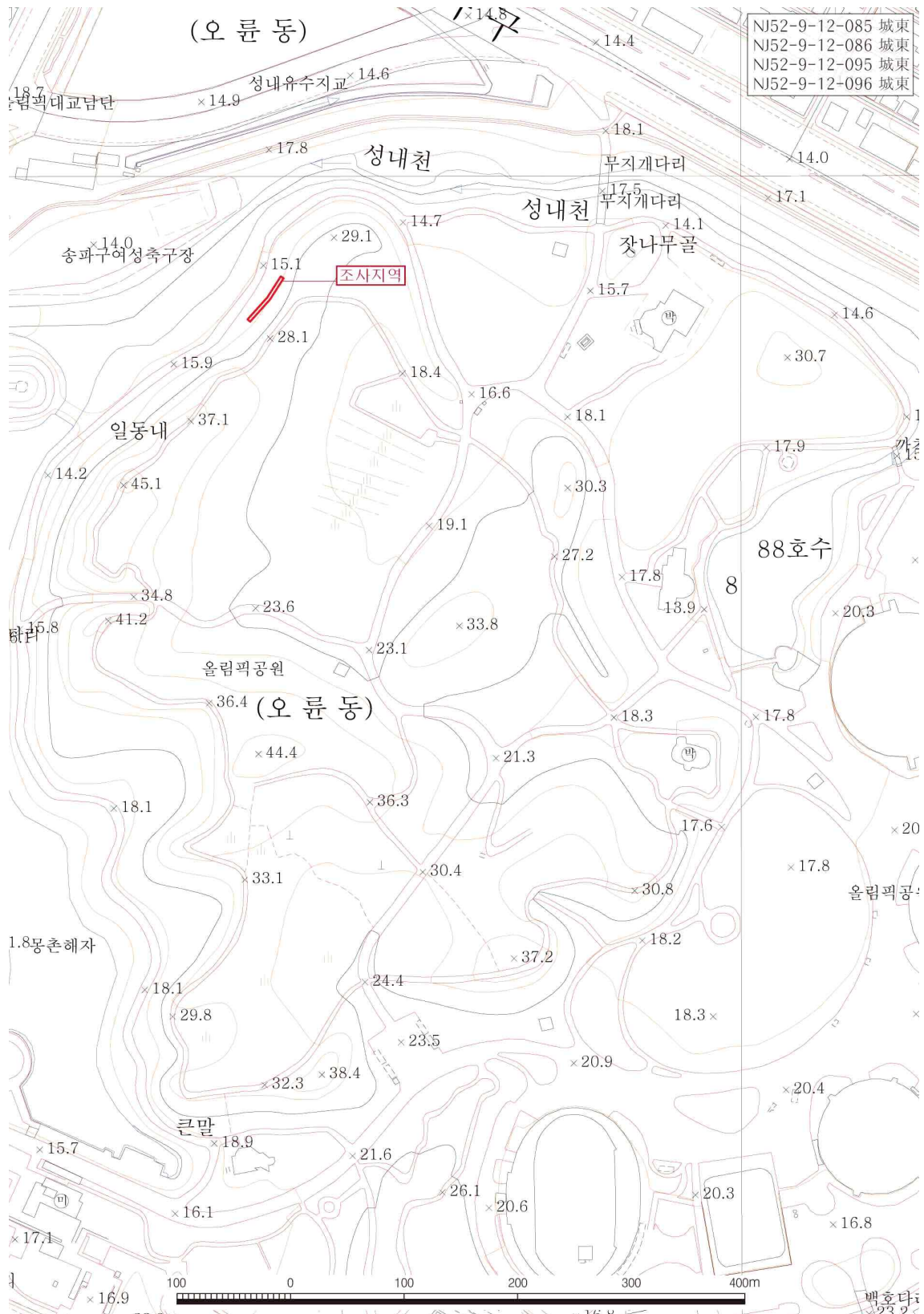
이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의 廣州郡에는 “中垜面 二里(夢村)에 소재하고 있다. 土壘는 약 250間정도가 현존하며, 높이는 약 3間이다. 陶器와 瓦片이 산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일제강점기에는 광주군 중대면 2리에 속하였다는 것과 몽촌토성에 대한 대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몽촌토성 기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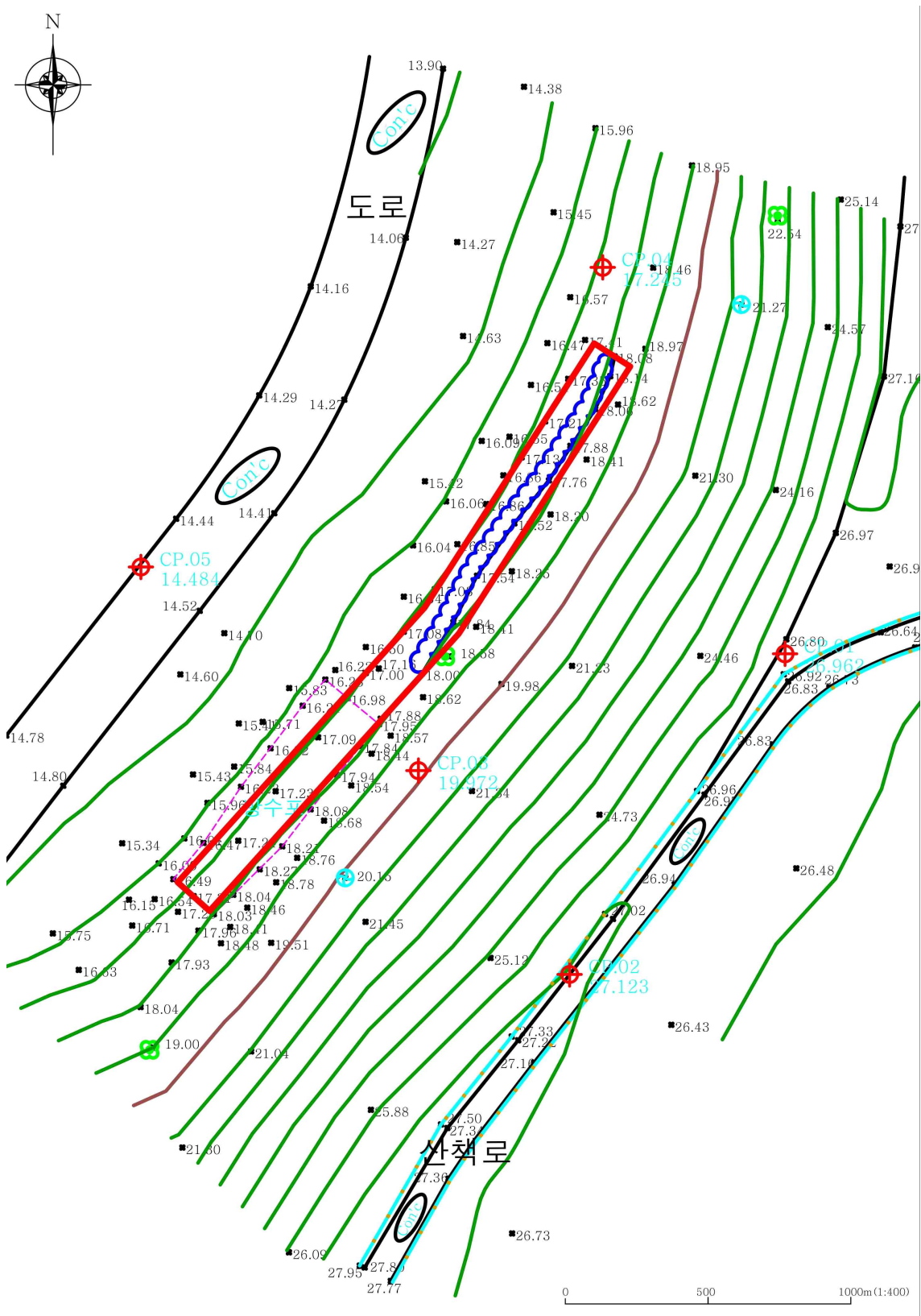
몽촌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198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시의 발굴조사는 학술적인 목적에 의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서울 올림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조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표 3> 몽촌토성 연도별 발굴조사 현황

년도	발굴지역	발굴기관	조사성과	
			유구	주요유물
1983	성벽 4개지점	서울대학교 박물관	해자, 목책 柱穴, 옹관묘 2	
1984	서북, 동북, 동남, 서남 지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송실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단국대학교 박물관	조선시대 건물지, 土壇, 외성 목책, 토광적석묘 3	통형기대, 동진 자기편 등
1985	성 내부, 문지	서울대학교 박물관	주거지 2, 저장구덩이 13, 토광묘 2, 옹관묘, 토광적석묘 등	직구호, 삼족기, 고배, 기대, 鍔帶金具, 뼈갑옷, 서진 전문도기.
1987	동북지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주거지 5, 저장구덩이 9, 옹관묘 1, 토광적석묘 1	중국 남조 자기벼루 조각, 백제연화문와당편
1988	동남지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주거지 4, 저장구덩이 7, 적석유구 3, 생활면유구 1, 방형유구 1 등	삼족기, 蓋, 직구호, 난형토기, 심발, 광구장경호, 시루, 호, 옹, 기대, 廣口長頸四耳甕.
1989	서남지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적심건물지, 온돌건물지, 저장구덩이, 연못지, 판축대지 등	백제토기, 고구려토기, 기와, 수막새, 중국자기, 철기 등



[도면 5] 발굴조사지역 위치도(1:5,000 수치지형도)



[도면 6] 발굴조사구역 지형도(1:400)

IV.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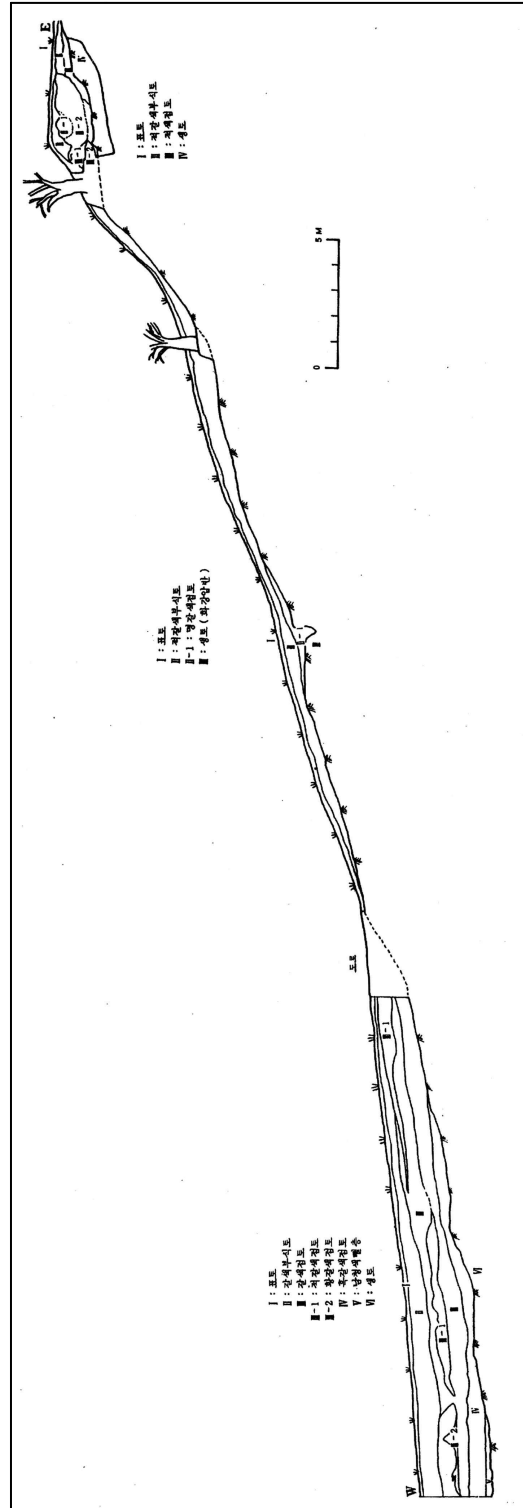
금번 발굴조사 대상지역인 몽촌토성 목책 재설치 공사 지역은 몽촌토성의 전체 성벽 구간 중 서북벽 구간에 해당한다(도면 5·6).

이 지역은 1983년도에 실시한 성벽 4개지점에 대한 조사지역에서 I 지점에 해당하며(도면 4 참조), 당시 Trench 조사에서 성 외벽 하단부(성벽 정상부로부터 두 번째 단, 標高 17.3m)에 기둥구덩열이 확인되었다(도면 7)

이 기둥구덩열의 양상은 발굴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토암반층을 깎아내어 만든 직경 40~50cm, 깊이 30~90cm 크기의 柱穴이 180cm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보조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기둥구덩들이 확인되었다(도면 8, 사진 1).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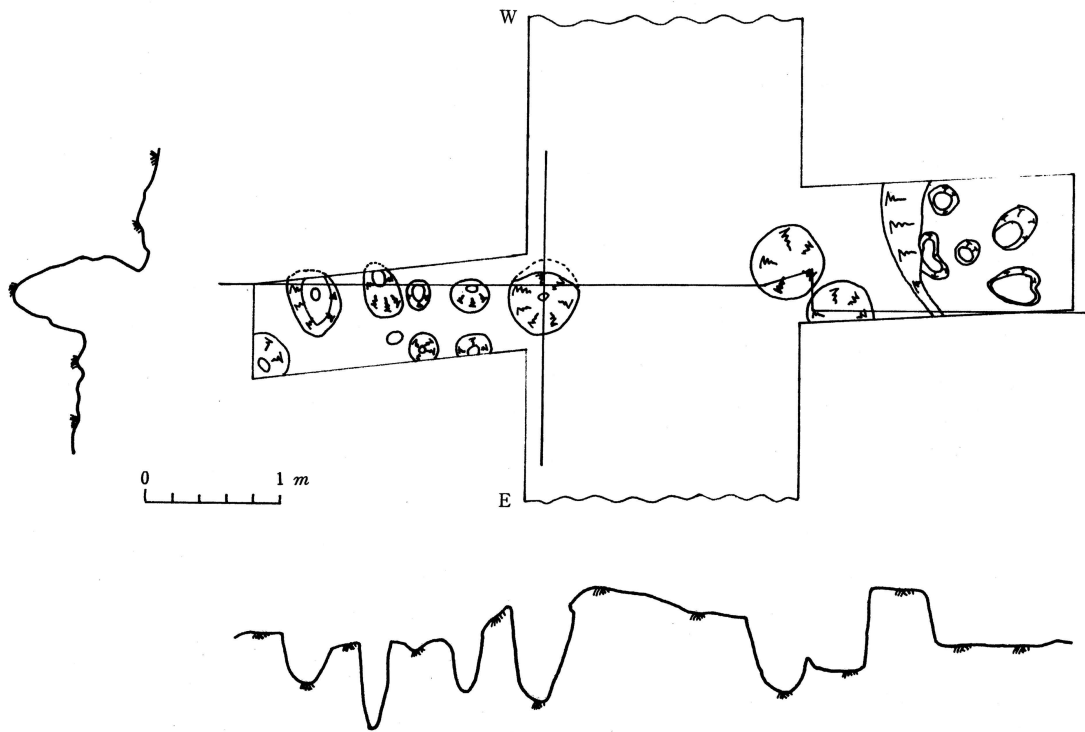


[사진 1] I 지점 Tr 木柱穴 노출 모습



[도면 7] I 지점 토층도

1)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5,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도면 8] 木柱穴 평·단면도

당시 확인된 기둥구덩열은 목책을 세웠던 목책구덩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 이 지역은 1980년대 이루어진 몽촌토성 정비공사 과정에서 참나무 생목으로 길이 50m에 걸쳐 목책이 설치되었다.

금번 발굴조사의 진행은 우선 기존에 설치된 목책의 부식된 木柱와 목주 사이 사이에 자생한 뽕나무를 제거한 후 조사구역 전체에 대한 전면제토를 실시하여 유구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83년도 시굴트렌치의 내부 매몰토를 제거하면서 단면조사를 진행하여 토층양상 및 기반토의 깊이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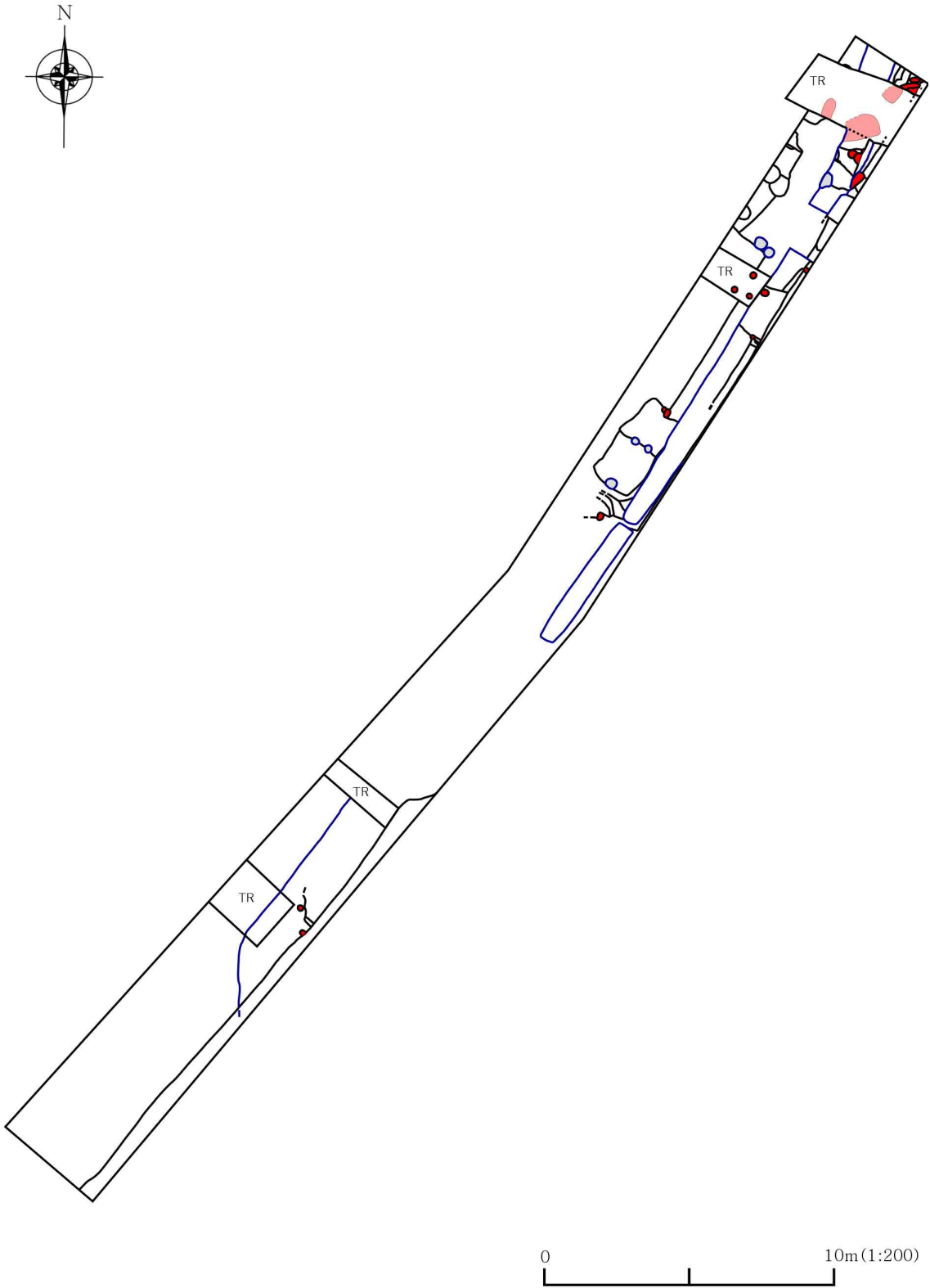
그 결과 현 지표로부터 40~80cm 내외의 깊이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성벽의 다짐토와 기둥구덩의 흔적이 노출되었다.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2] 조사지역 전경(목책 및 잡목 제거 전)



[사진 3] 조사지역 전경(목책 및 잡목 제거 후)



[도면 9] 조사지역 현황도

1. 층위

북동벽의 토층을 통해 층위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자연 퇴적층 및 복토층과 그 아래의 성벽 축토층으로 구분된다. 즉, 현 지표로부터 50~80cm 깊이까지의 자연퇴적층과 복토층(1~7층)은 사면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층위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5~30cm 두께의 표토층(공원조성시 잔디 식재) 아래로 회갈색사질토(10YR 4/1)-황갈색사질토(10YR 5/6)-암갈색사질토(2.5Y 4/3)-명갈색사질점토(7.5YR 5/6)-갈색사질토(10YR 4/6)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한편, 성벽 축토층은 83년도 조사구덩을 기준으로 사면 위쪽인 남동쪽부와 사면 아래쪽인 북서쪽부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동쪽부의 층위 양상은 갈색사질점토(10YR 4/4)-암갈색사질점토(2.5Y 4/4)-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2.5Y 5/3)-암황갈색사질점토(10YR 5/4)-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2.5Y 5/3)-황갈색사질점토(2.5Y 5/6)-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2.5Y 5/4)-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2.5Y 5/3)-회올리브색사질토+암반풍화토(5Y 4/2) 순으로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축토층의 전체 잔존높이는 기반토 위로 50cm 내외이다. 이를 통해보면 잔존 토축 성벽은 기반토 위로 50cm 내외 이며, 토축은 (암)황갈색사질점토와 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을 교대로 다져 올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면 아래쪽인 북서쪽부는 자연 퇴적층 아래로 황갈색점토(10YR 5/8)-황갈색사질점토+점토혼합층(10YR 5/6)-명갈색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7.5YR 5/6)-암황갈색점토(묵탄, 소토 덩어리(표토블록?) 포함10YR 4/3)-적갈색 소토(2.5YR 4/8)-회갈색사질토(2.5Y 5/3) 순으로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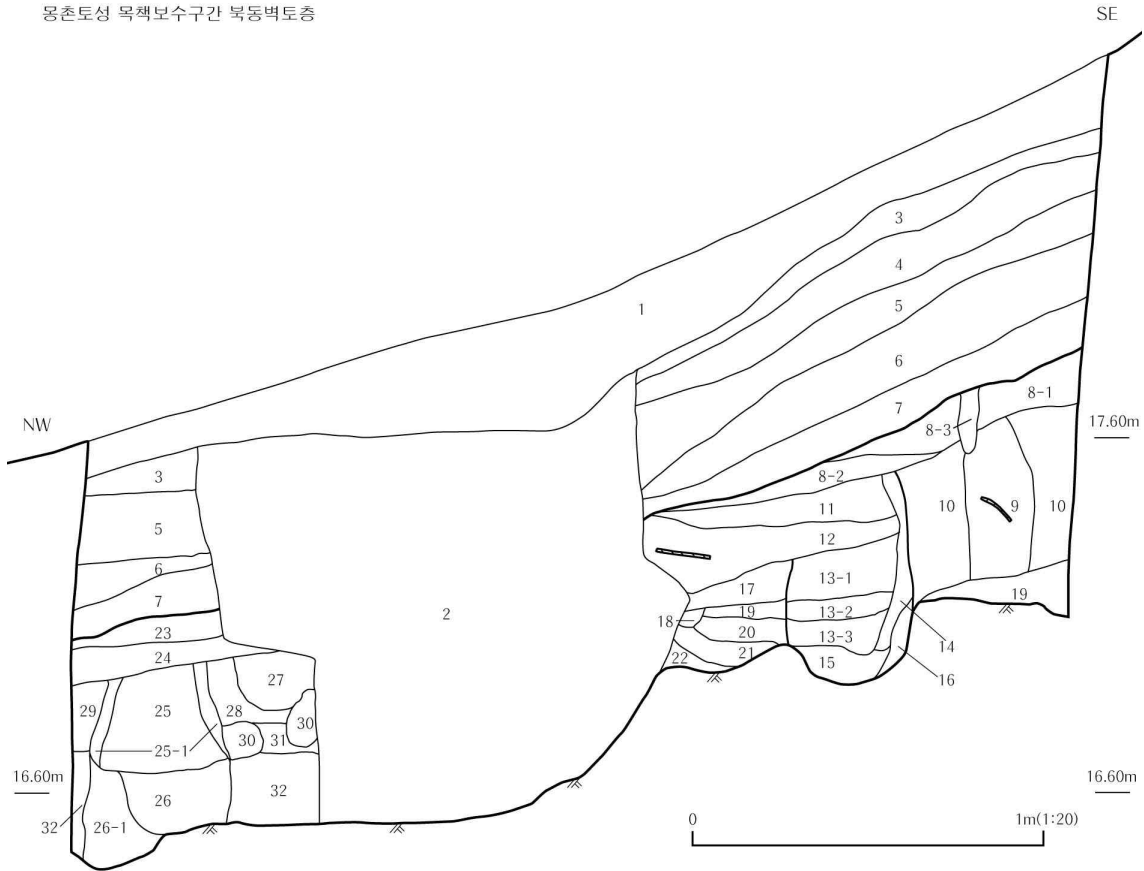
이러한 성벽 다짐토의 토층양상의 차이는 築土 단위(작업 구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벽 다짐토상에 목주를 뽑아 올린 흔적이 확인되고 있는데, 잔존 토축부 윗부분까지 올라가지 않고 목주 흔 윗부분이 깎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 한번 정도의 수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기반토 지정

83년도 트렌치를 정리한 결과 성벽의 기저부를 이루고 있는 기반토가 40cm정도의 단차를 보이며 계단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조사구역의 북동단에서 남서쪽으로 10m 지점에 1m 폭으로 설치한 탐색구덩이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단이 지는 경계 지점에서 목주흔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성벽을 축조할 때, 사면을 이루고 있는 자연구릉의 경사면을 계단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계단상의 기반토 지정은 성벽 진행방향을 따라서도 확인되고 있어 기저면이 사면을 이루는 지형에서는 성벽 상하방향 뿐만 아니라 진행방향으로도 계단상의 지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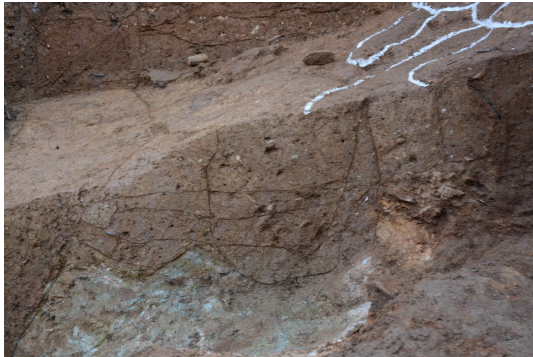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식토 2. 기초사 트랜치 3. 회황갈색부토층(10YR 4/1) 4. 황갈색사질토, 부식토, 교란층(10YR 5/6) 5. 탁한황갈색사질토(2.5Y 4/3) 6. 명갈색사질점토(7.5YR 5/6) 7. 갈색사질토(10YR 4/6) 8-1. 갈색사질토 혼합층(10YR 4/4) 8-2. 탁한갈색사질점토 혼합층(2.5Y 4/4) 8-3. 탁한갈색사질토(2.5Y 4/4) 9. 명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2.5Y 6/6) 10. 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2.5Y 5/4) 11. 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2.5Y 5/3) 12. 탁한황갈색사질점토(10YR 5/4) 13-1. 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자갈 혼합층(10YR 5/8) 13-2. 황갈색사질점토(2.5Y 5/6) 13-3. 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2.5Y 5/4) 14. 황갈색사질점토(2.5Y 5/3) 15. 회올리브색사질점토+암반풍화토(5Y 5/3)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암회황갈색사질점토(2.5Y 4/2) 17. 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10YR 5/8) 18. 회올리브색사질토+암반부스러기 덩어리(5Y 5/3) 19. 황갈색사질점토(2.5Y 5/6) 20. 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少) 혼합층(2.5Y 5/4) 21. 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少) 혼합층(2.5Y 5/3) 22. 회올리브색사질토+암반풍화토(5Y 4/2) 23. 황갈색사질점토(10YR 5/8) 24. 황갈색사질점토+점토혼합층(10YR 5/6) 25. 적갈색소토(2.5YR 4/8) 25-1. 적갈색소토(2.5YR 4/6) 26. 황갈색사질토(2.5Y 5/3) 26-1. 황갈색사질토(2.5Y 5/3) 27. 명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자갈 혼합(2.5Y 6/6) 28. 탁한황갈색점토층, 목탄 혼입(10YR 4/3) 29. 명갈색점토층+암반부스러기 혼합층(7.5YR 5/6) 30. 명적갈색소토덩어리(2.5Y 5/8) 31. 탁한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10YR 5/4) 32. 탁한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少), 자갈(少) 혼합층(10YR 5/4) |
|--|--|

[도면 9] 조사지역 북동벽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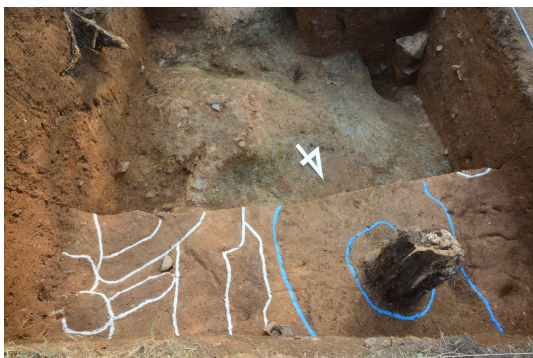
[사진 4] 조사지역 북동벽 토층 모습



[사진 5] '83Tr 남동쪽부 토층 세부모습



[사진 6] '83Tr 북서쪽부 토층 세부모습



[사진 7] 북동쪽부 세부 전경



[사진 8] 기반토 계단상 지정모습

3. 木柱(영정주) 구덩

금번 조사에서는 토층단면과 성벽 토축부 평면상에서 영정주로 추정되는 목주 흔 및 기둥구덩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성벽 토축부의 토층단면상에서는 기둥을 뽑아 올린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1) 성벽 경사방향의 목주(흔) 양상

북동벽의 토층상에 나타난 목주 흔의 양상을 통하여 성벽 경사방향의 목주 양상을 살펴보면, 남동쪽부에서 나타난 목주 흔의 경우 (암)갈색사질점토 혼합층(8층) 아래에서 확인되었는데, 2개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목주를 뽑아 올린 자리에는 명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과 황갈색 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 등으로 채워져 있다. 83년도 조사내용과 금번 조사에서의 토층양상을 통해보면, 사면 방향의 목주 간격은 약 110cm 내외로 추정된다. 북서부에서도 회갈색사질토 위에 30×30cm크기의 소토덩어리가 확인되었는데, 중심부에서 외측으로 가면서 짙은 적갈색에서 담홍색을 띠고 있어 표토블록으로 보기 보다는 목주가 불에 타면서 소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쪽부와 남동쪽부에서 확인된 목주 흔의 간격은 180cm정도로 나타나는데, 1983년도 조사내용을 고려하면, 사면방향의 목주간격은 110cm 내외로 추정된다.

2) 성벽 진행방향의 목주(흔) 양상

성벽 진행방향의 주 기둥 간격은 1983년도 조사에서 약 180cm로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조사에서도 성벽 진행방향인 북동-남서 방향의 남동벽 토층상에서 기둥구덩과 목주를 뽑아 올린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기둥구덩 혹은 목주를 뽑아 올린 흔적은 동일 높이로 확인된 경우가 많지만, 인접한 선상에 높이를 달리하여 위치한 경우도 확인된다. 또한 목주(구덩)의 간격은 높이를 달리하여 위치한 경우는 동일선상 혹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동일 높이에서 확인된 것은 50~60cm로 좁은 간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토축 성벽을 축조함에 있어 목주를 뽑아 올리며 판축하였으며, 주 기둥사이에 판목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기둥을 세워서 나타난 양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성벽 진행방향의 주 기둥 간격은 지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983년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80cm 내외로 판단된다.

4. 축조기법

금번 몽촌토성 목책 재설치 공사 구간에서 나타난 몽촌토성 서북벽 구간의 성벽은 조사내용을 통해 볼 때 토축성벽으로 판단된다.

조사구역이 협소하고, 조사구역 내의 잔존 토축성벽이 최대 50cm 높이에 불과하여 축조기법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내용을 토대로 축조기법을 기초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연구릉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기반토를 계단상으로 지정
- ② 주 기둥(영정주)과 보조 기둥을 세워 판목을 결구하고 그 안에 황갈색 점토와 (암)황갈색 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혼합층을 교대로 다져가며 성벽을 축조
- ③ 성벽 상부로 가면서 목주는 계속 뽑아 올리며 판축함
- ④ 축조재료에 소토덩어리가 확인되어 표토블록일 가능성이 있음



[사진 9] 1983년 Tr 기둥구덩 및 남동벽 토층(목주흔) 모습



[사진 10] 성벽 진행방향의 목주흔 세부 모습

5. 출토유물

성벽 다짐토와 교란토 내에서는 소량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성벽 다짐토 내에 혼입된 토기편은 회색 절두우각형파수편과 동체편, 승문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 격자타날 적갈색 연질의 원저호편 등이 있다. 교란토 내에서 출토된 토기편은 반형 삼족기편, 뚜껑편 등이 있다.

한편, 금번 조사대상지역인 목책 재설치 공사 구간에 대한 입회조사 당시 반형삼족기, 단경호편 등이 수습된바 있다.



[사진 11] 성벽 다짐토 내 토기편 1



[사진 12] 성벽 다짐토 내 토기편 2



[사진 13] 성벽 다짐토 내 토기편 3



[사진 14] 성벽 다짐토 내 토기편 4



[사진 15] 교란토 내 토기편(뚜껑편)



[사진 16] 입회조사 당시 수습된 토기편

V. 회의안건

1. 확인된 유구와 유물의 성격 및 편년
2. 유적의 보존대책
3. 기타사항